

“중견 3사 위기 극복과 미래차 전환에 정부 역할 중요”

23일 국회 토론회 ... 중견 3사 성장·전환 연계한 부품사 자립성 강화 정책 필요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등 자동차산업 중견 3사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속노조와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5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견 3사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극복과 대응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이 맡았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열며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중견 3사 관련해 금속노

조 역할을 주문해 오늘 토론회가 열렸다”라며 “완성차, 부품사가 지원청 현황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며 “중견 3사와 그 부품업체의 여러 과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노동자 연대로 나가는 출발점을 만들자”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항구 JIAT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전기차가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겪고 있으나 2026년 이후에는 세계 전

기차 수요가 내연기관 수요를 본격 대체한다면서 ▲중견 3사가 모두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 3사에 대해 △KG모빌리티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전동화 추진 중이나 원가 압박에 직면 △르노코리아는 단순 생산기지화 △한국지엠은 본사의 친환경차 배정 의지는 있으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불투명한 미래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석범 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중견 3사 전속 부품기업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1차 협력업체 노동자 중 5분의 1 이상은 중견 3사 물량과 직접 연동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홍석범 원장은 “정부의 부품산업 지원 정책을 ‘승자승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적극적 조치에 입각한 포

용적 산업전환 관점' 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며 "증견완성 3사의 성장과 전환에 연계함과 동시에 자립성을 강화하는 산업전환 지원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를 통해 완성차-부품사 연대와 동반성장을 꿈꾸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고민에 정비사업협회, 대리점연합회, 부품사들과 동반성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라고 발표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총선 시기 진보정당과 정책협약 추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인천시 산업 정책 개입 ▲가동 중단한 부평2공장 관련 지역 문화 아카이빙 ▲완성차-부품사 상생 요구안 상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지부의 다양한 활동의 배경에는 지난해인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이 있다. 안규백 지부장은 "작년 UAW 파업 영향이 컸다. 배울 것은 배워서 시도하자고 준비 중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6월 12일 여의도를 분노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현장 챙기기도 벅찬데 나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치권,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전임자 축소와 타임오프 압박,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 노동조합 적폐 물이, 회계공시 등 금속노조가 윤석열과 헤어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21대 국회 4년 역시 무능하고 게으르고 한심하고,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분노, 새 국회에 대한 경고를 6월 12일 제대로 전달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건강한 노동 현장에 대한 결의와 희망'을 보여줍니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머리띠 질끈 묶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타임오프 철폐 | 노조법 2-3조 개정 | 노조할 권리 쟁취

2024.6.12.(수) 14시 여의도 국회

